

경북, 구미에 반도체 소부장 혁신거점·국방 실증기반 조성

도내 380개 기업 테스트베드 구축
화합물반도체 R&D로 양산 연계
‘구미형 투자촉진 모델’ 등 마련
KIST와 국방반도체 연구 강화
산학연 상생파운드리 사업 본격화

경북도가 구미시를 중심으로 대경권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혁신거점과 국방반도체 실증 기반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지난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대경권 소부장 거점 육성 및 방산 특화형 시스템반도체 실증 기반 구축 계획에 맞춰, 지역 내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경북도는 구미를 반도체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기술개발-실증-양산-팩(Fab)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내 380여 개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 연구개발부터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 양산 검증까지 전 과정을 지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구축한다. 또한 차세대 반도체 시장 선점을 목표



경북도와 구미시, KIST가 2일 도청 회의실에서 국방 반도체 및 관련분야 공동연구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있다.

로 화합물반도체 소재·부품 기술개발을 추진하며, SK실트론·LG이노텍·원익QnC 등 지역 앵커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동 R&D를 확대해 실제 구매 및 양산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특히 과학적인 보조금, 세제 혜택, 부지 제공 등을 포함한 ‘구미형 투자촉진 모델’을 마련해 국내외 반도체 기업의 신규 투자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국방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발걸음도 빨라진다. 경북도는 한국과학기술

연구원(KIST)과 공동으로 올해부터 2029년까지 75억 원을 투입해 국방반도체 R&D를 추진하고, KIST 경북본원 설립을 추진해 연구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아울러 자재(구미시), 연구기관(KIST·나노융합기술원 등), 대학(서울대·DGIST·금오공대 등), 방산기업(한화시스템·LG·KEC 등)과의 산·학·연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국책사업을 공동 기획한다. 지역 기업인 KEC와 협력하는 ‘국방 상생파운드리 구축사업’과 ‘디지털 AI 기반

국방반도체 통합 실증 허브’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국내 반도체 공급망 안정성과 방산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정부가 부여한 대경권 소부장 혁신거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겠다”라며 “기술개발부터 실증, 생산, 기업 투자까지 이어지는 세계적 수준의 반도체 산업생태계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안동(경북)=김준한 기자 kih9@metroseoul.co.kr



충남 닥터헬기, ‘하늘 중환자실’로 출범

중형 기종 교체, 체공시간 4시간20분
환자 2명 동시이송·처치역량 강화

10년간 1,400여 명의 생명을 살린 충남 닥터헬기가 성능을 대폭 강화한 중형 헬기로 새롭게 출범했다. 체공시간과 환자 이송 능력이 향상되면서 중증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와 충남 응급의료 체계 강화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충남도와 단국대학교병원은 지난 16일 단국대병원 본관 대강당에서 박수현 충남도지사와 조철기 충남도의회 의장, 장호성 학교법인 단국대학 이사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중형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출범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달 1일부터 운항을 시작한 신형 닥터헬기는 동체 길이 14.6m, 최대이륙중량 4,800kg으로 기존(12.96m·3,175kg)보다 커졌으며, 연료 탑재량이 두 배 이

상 늘어 체공시간도 기존 2시간 30분에서 최대 4시간 20분으로 확대됐다.

넓어진 가내 공간 덕분에 비행 중 심폐소생술(CPR)과 각종 응급처치를 더욱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최대 탑승 인원도 6명에서 7명으로 늘어나 상황에 따라 환자 2명을 동시에 이송할 수 있다. 순항속도는 시속 285km에서 268km로 다소 낮아졌지만, 운항 안정성과 응급처치 여건은 한층 개선됐다.

의료장비는 인공호흡기와 이동형 초음파 진단기, 자동흡부압장치 등 24종 242점을 유지했고, 환자 상태에 따라 ECMO(체외막산소공급장치)와 인공생아 인큐베이터 등 특수장비도 추가 장착할 수 있다. 충남도는 신형 닥터헬기가 기존 ‘하늘을 나는 응급실’을 넘어 ‘하늘의 중환자실’ 역할까지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남=양대성 기자 zzica@

부산, ‘명문향토기업’ 33곳 인증

신규 기업 23곳으로 대폭 확대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지난 16일 전제수 부산시장을 비롯해 기업 대표와 임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부산시 명문향토기업’ 33곳에 대한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명문향토기업 인증 제도는 2006년 시작됐다. 부산에 본사가 있는 기업 가운데 업력 20년 이상, 상시 종업원 100명 이상,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200억 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경제적 기여와 고용 유지, 사회적 기여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한다.

시는 올해 4월 조례 개정으로 기존 ‘향토기업’ 명칭을 ‘부산시 명문향토기업’으로 바꾸고, 업력 기준도 30년에서 20년으로 낮췄다. 이번 선정은 개정 조

례를 적용한 첫 사례이다.

올해 선정 기업은 신규 23곳과 재인증 10곳이다. 신규 기업은 전년 5곳에서 크게 늘었으며 이번 선정으로 누적 인증 기업은 총 87곳이 됐다.

업종도 전통 제조업을 넘어 ▲전기·전자 ▲조선 ▲자동차부품 ▲식품 ▲수산 ▲항공 ▲금융 ▲의료 등으로 다양해졌다. 신규 기업에는 화신볼트산업, 은하수산, 동양제강, 현향공산업, 좋은문화병원, 삼진식품, 파나시아 등이 포함됐다.

선정 기업에는 정책자금 우대 지원, 지방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유예, 부산도시가스 요금 우대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경영인증평가원과 국제표준(ISO) 인증 심사·임직원 교육 우대를 위한 업무 협약도 체결됐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포항, 글로벌 수소혁신 사업단 개소

포스텍과 2029년까지 공동 운영

포항시가 지역 대학 연구역량과 산업기반을 연계한 수소산업 혁신 플랫폼 구축에 나섰다.

포항시는 지난 16일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환경공학동에서 글로벌 수소혁신사업단(H2-BRIGHT) 개소식을 열고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수소혁신 사업단은 교육부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사업의 FuelCell NEXUS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전담 조직으로, 포항시와 포스텍이 협력해 운영한다. 사업단은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구축과 국가 연구개발 과제 발굴, 지역 수소산업 성장 기반 조성을 맡는다.

윤창원 포스텍 화학공학과 교수를 단장으로 포스텍 산학협력팀과 전문 연구진이 참여하며 오는 2029년까지 운영된다. 포항 수소특화단지와의 연계해 지역 수소기업의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를



포항시와 포스텍 관계자들이 16일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환경공학동에서 열린 글로벌 수소혁신사업단(H2-BRIGHT) 개소식에서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해외 연구기관과의 국제 공동연구 및 기술교류 확대, 포항 국제 수소연료전지 포럼 운영 지원, 한국수소기술원 설립 사전 기획, 국가 수소 분야 신규 연구개발 과제 발굴,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 등이 추진된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경남,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9월 7일까지 정부24 비대면 조사

경남도가 오는 20일부터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들어간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매년 시·군이 진행하는 조사로,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복지·선거·교육 등 행정 서비스의 정확성을 높이고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2022년부터는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가 도입돼 참여 방식이 한층 간편해졌다.

7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는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가 진행된다. 거주지에서 휴대전화 GPS 변경 100m 안에 접속해 거주 여부를 응답하면 되며

참여한 세대는 원칙적으로 방문조사에서 제외된다.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을 대상으로 방문조사가 이뤄진다. 이·통장이 1차 방문조사를 하고, 거주 여부가 실제와 다르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읍·면·동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2차 조사를 진행한다.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 불명자, 사망 의심자, 복지 취약계층, 장기 미인정 결석 아동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는 비대면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방문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지역 이모저모

부산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막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19일부터 29일 까지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다. 이번 위원회는 19일 개회식과 20일 본 회의를 시작으로 각국 대표단이 모여 보고·보존·등재·정책 등 세계유산 관련 주요 의제를 논의한 뒤 28일 폐회식을 연다. 이 기간 위원회 참가자들이 부산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근현대역사관, 임시수도기념관 등 피란수도 부산유산과 전통시장을 둘러보는 ‘부산유산 필드트립’을 비롯해 반구대 암각화와 불국사 등을 탐방하는 ‘세계유산 필드트립’이 진행된다.

/부산=이도식 기자

경주시

스리랑카와 문화관광 교류 확대

경주시는 주한 스리랑카대사를 만나 문화·관광 교류와 세계유산도시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지난 16일 시청에서 M.K. 파프마 나탄 주한 스리랑카대사를 접견하고 내년 한국-스리랑카 수교 50주년을 앞둔 지방정부 교류 확대와 세계유산도시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경주시는 스리랑카 캔디시와 세계유산도시기구 아시아·태평양지역(OWHC-AP)네트워크를 통해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코로나19 당시 불국사와 함께 방역물품과 성금을 지원했으며, 현재는 우호도시 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등 교류 기반을 넓히고 있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영덕군-대구한의대학교

오지마을 찾아가는 한방진료

영덕군과 대구한의대학교가 지역사회와 대학이 함께 만드는 의료복지 모델을 실천하며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영덕군 영해면 사진3리 마을회관에서 ‘2026학년도 K-MEDI 한의나눔사랑방 7월 영덕 의료봉사’를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번 의료봉사는 ‘대구한의대와 함께하는 2026년 찾아가는 오지마을 한방진료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영해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지역 어르신들에게 수준 높은 한방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영덕(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한국마사회 영남지역본부

녹산동 주민위해 3600만원 기탁

한국마사회 영남지역본부가 부산 강서구 녹산동 주민들에게 기부금 3600만원을 전달했다. 마사회 영남지역본부는 지난 15일 녹산동 행복복지센터에서 열린 ‘녹산동 한강대회’ 결승전에서 낙동종합사회복지관에 이 같은 금액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낙동종합사회복지관은 한국마사회 펫츠런파크 부산경남이 진행하는 ‘녹산동 지원 사업’에 선정돼 이번 기부금을 받게 됐다. 기부금은 한강대회 운영, 경마공원 인근 마을 취약계층 이웃돕기, 겨울나기 이불 지원 등 3개 사업에 쓰인다. 수혜 대상은 녹산동 주민 약 400명이다. /부산=이도식 기자